

## 운전면허학원 강사와 F1- 드라이버는 어떻게 다른가?

박 동섭([littleegan@gmail.com](mailto:littleegan@gmail.com))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하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강사라는 존재가 있죠. 이 사람들을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선생님’일까요?

확실히 그들은 자동차운전기술이라는 매우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강사(교관)들에게 경의를 안거나 ‘은사’로 부르거나 졸업 후 동창회를 열어서 옛날이야기로 꽃을 피운다는(“야 자네는 정말로 S자와 크랭크를 잘 못했지 하하하!”)이야기는 거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졸업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강사의 이름도 얼굴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동차운전기술과 교통규칙은 틀림없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입니다. 그것을 교수(教授)받았음에도 왜 여러분은 그것을 제공해 준 사람을 존경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케이스 하나.

똑같은 자동차운전기술이라도 당신이 임시면허를 딴 후에 우연히 F-1 드라이버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설령 한나절 정도의 강습이었어도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그 후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입에 담지 않을까요? “나는 슈마허에게 액셀러레이터 워크를 배웠다고”말이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집 근처의 운전면허학원의 김선생님과 F1- 드라이버의 지명도의 차이일까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속물이었나요? 유명인이라면 그것만으로 존경해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이 경의의 차이는 ‘배운 것’의 차이에서 유래합니다.

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김선생님보다 슈마허가 운전기술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입니까?

어떻게 왜 임시면허를 막 딴 당신이 사람의 운전기술의 능란함과 서투름을 판단할 수 있습

니까? 혹여 김선생님도 A급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으로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폭주하는 드라이버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김선생님은 당신에게 그런 ‘폭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학원에서는 설령 선생님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더블클러치라든지 스피드 텀 같은 것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가 다른 것일까? 두 사람의 선생님은 둘 다 당신에게 자동차운전기술이라는 똑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서부터 배운 것은 다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김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배운 것은 졸업검정에 합격하는 수준의 운전기술입니다.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의 기술을 클리어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학습의 목적인거죠. 매우 알기 쉬운 목표이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유용한 기술과 법칙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기 쉬운 교육목표를 설정해서 유용한 기술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술은 당신의 그 후의 인생에 여러 편익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학원의 선생님은 당신으로부터 오래된 경의를 얻을 수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편 F-1 드라이버는 당신에게 한나절 강습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 드라이버는 당신의 얼굴 같은 거 그 날 중으로 잊어버립니다. 그 드라이버는 그 날 우연히 만났던 젊은이에게 핸들링과 기어 체인지의 기초를 쿨하게 가르친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배웠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명도도 아니고 기술의 능숙함과 서투름의 차이도 아니라고 한다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드리기로 하죠.

다른 것은 한쪽으로부터는 당신은 ‘정량적인 기술’을 배우고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기술은 정량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F-1 드라이버가 반드시 당신에게 가르쳤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기술에는 「이것으로 됐다」라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전은 창조이고 드라이버는 예술가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에는 무한의 단계가 있어서 완벽한 기술이라는 것을 인간은 달성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어떤 길이라도 프로라면 반드시 초심자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이 길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프로가 초심자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닙니다(만약 아마추어 앞에서 “이런 것 누구도 할 수 있어 간단 간단”이라고 말하는 프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위험한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에는 무한한 단계가 있어서 완벽한 기술이라는 것에 사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 프로는 어느 길에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제일 처음 가르칩니다.

하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끊이질 않을까요?

그것은 완벽한 기술에 도달할 수 없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기술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천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똑같은 곳에 다다르는 사람은 결코 두 사람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재능이 있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독창적인 기술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독창적인 기술에 의해서 그 영역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술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프로 스포츠라도 음악도 미술도 대략 개인의 높은 퍼포먼스가 평가되는 모든 영역에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운전학원의 선생님은 ‘자네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정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갖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프로의 드라이버는 ‘자네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만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한쪽의 선생님은 ‘이것으로 끝’이라는 도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한 쪽의 선생님은 ‘끝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도달점을 소거시켜서 보여줍니다. 두 명의 선생님이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대부분 똑같은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것에 끝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은 왜 생기고 마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죠.

배운다는 것은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슈마허에게 엑셀러레이터워크를 배웠을 때 당신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신은 그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프로라고 하면 말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기술에 완성은 없다’와 ‘완벽을 벗어나는 방식에서 창조성은 있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배우는 것’의 핵심에 있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실은 연애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연애에 끝은 없다’ 그리고 ‘실패하는 방식에서 우리들은 독창성을 발휘한다’.